고물가에 격식보다 실용…순금 대신 18K·14K 인기

예비부부, 예식·혼수 지출 예물 다변화

순금 1년새 20% 하락 불구 부담 여전

"부담 적고 실생활 활용 높은 제품 선호"



"평생 금고 속에 숨겨둘 순금 세트보다는 출근할 때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18K 커플링으로 맞추기로 했어요."

10일 오후 1시께 찾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석로의 귀금속 거리(사진). 매장을 찾은 예비부부들의 시선은 좀처럼 순금 코너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은은한 로즈골드빛의 18K·14K 제품이 놓인 실속형 예물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디자인과 가격을 비교하며 상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예물 상담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예비신부 이모(30)씨는 "순금은 자산 가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일상에서 착용하기에는 디자인이나 무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결혼 예산을 고려해 가격 부담은 줄이면서도 평소 액세서리처럼 활용할 수 있는 14K 목걸이와 반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예비신부 황모(31)씨는 "부모님 세대는 굵직한 순금 예물 세트를 필수처럼 하셨다지만, 요즘은 평소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디자인을 훨씬 선호한다"며 "14K나 18K 제품은 순금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은데다 세공 디자인도 다채로워 매장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꼼꼼히 비교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물 선택 기준이 달라진 배경에는 고물가와 금값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식장과 신혼여행, 혼수 등 지출해야 할 항목이 많은 만큼 예물에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실제 순금 시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다. 한국금거래소 기준 순금 1돈(3.75g) 살 때 가격은 지난해 11월10일 82만8천원에서 이날 기준 66만5천원으로 1년 새 16만3천원(약 19.7%) 내렸다. 그러나 금값 하락이 예물 구매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품목으로 구성된 고중량 순금 세트를 마련하려면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데다, 세공비와 디자인에 따른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구에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최모(50대)씨는 "예전에는 순금 3돈이나 5돈짜리 목걸이·팔찌 세트를 찾는 예비부부가 많았지만, 요즘은 18K나 14K 단품 커플링을 찾는 손님과 문의가 늘었다"며 "금값이 내려갔다고 해도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 소비자들이 가격과 실용성을 꼼꼼하게 따진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중장기적 긍정론에 무게…단기적 부정론 경계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최근 증시 내부적으로 '약속의 2시'라는 부정적인 밈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오전 증시 방향성과는 별개로 오후가 되면 주가가 밀리거나 낙폭이 확대되는 현상으로 증시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외국인의 매도 방향대로 증시가 움직이고, 증시 회복력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 쌓여있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숫자를 믿지 못하는 단계에 빠져있다 보니 당장의 주가 변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쉽게 위축되는 분위기인 듯하다. 상승 시의 매물도 지속되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통해 더 분명해졌던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은 선거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이어져 증시의 하단을 방어해줄 것이다.

지난주 코스피는 11.7% 하락하며 한 주 만에 약세로 반전했다. 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은 44.5%에 도달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뛰어넘는 역사적 부진을 기록했는데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은 3.5배 수준까지 낮아졌다. 최근 10년 평균이 10배인 것을 감안하면 극단적으로 낮아진 수치로 반도체가 수치를 왜곡시켰기에 오히려 반도체를 빼고 시장을 본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출보다는 내수, AI 인프라보다 전통 산업에서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지난 1년 동안 반도체와 주가 상관계수가 낮은 업종은 미디어/호텔 레저/유틸리티/소프트웨어/제약바이오였다. 실제로 AI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일부 방어주와 다른 성장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통신과 게임, 일부 개별 제약 바이오(셀트리온, 한미약품)에서 강한 흐름이 나왔다.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 블루웨이브 발 AI 불확실성 여진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인플레이션 지표 ▲코어위브, AMAT 등 미국 AI주 실적 등을 소화하면서 지난주 폭락분을 만회해 나갈 전망이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이후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메모리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됐고, 외국인의 매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며 6일에는 장중 코스피 5천pt를 하회하기도 했었지만 기관 매수로 낙폭을 줄였다.

최근 부정론이 확산되며 긍정론과의 비율이 4:6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다.

긍정론 내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로 에이전틱 AI가 아직 자리를 잡지도 않았고 피지컬 AI는 시작도 못했다. 갈 길이 먼데 피지컬 AI 확산의 키는 결국 두뇌이기에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한 미국 민주당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인허가 규제에 나선다면 구글과 같이 데이터센터를 해외로 나가는 것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민주당 당선 지역이 아닌 공화당 지역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 규모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의 경제 성장은 상당 부분 AI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딜레이 시킴으로 민주당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부정론을 정리해 보자면 AI 기술이야 잘 되겠지만 여기에 투자한 채권과 주식의 수익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 밑단의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이율이 15%를 넘어가고, 심지어 그 이자로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무너질 수 있고 AI 사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유로 매출이 연산/전력/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설비투자 후에도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연결지점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빅테크 7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이 더 컸다. AI 투자 확대가 이들 기업 당장의 이익에 악영향을 준 것이고 이 비용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시장을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론에 무게를 두되, 단기적인 부정론을 경계해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다. 구조적인 성장세는 유효한 만큼, AI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까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10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역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은-신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협력

'지역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협약

신규사업 발굴 추진·금융지원 등

경제 활성화·미래 성장동력 확보

광주은행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민간투자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날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뜻을 모으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자사업 발굴부터 컨설팅, 금융지원까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사업구조 검토 ▲전남광주 지역 민자사업 후보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연계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및 파이낸싱 자문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 발굴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추진방식과 자금조달 구조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신규 민간투자산업 발굴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시설 활충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남광주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역량과 58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광주은행의 금융 경험 및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에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사업 발굴과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옥 기자



